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함줄함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
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_ 사 43:19

창립 25주년 맞은 2013년의 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찬란함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찾아가고 고통당하는 생명과 함께 아파하고 외로운 생명들에게 빛을 주는 십자가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올해 교회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2013년 1월 6일, 박원호 담임목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2013년 교회 표어에 대해 설명했다. 이 표어는 이사야 60:1~3의 말씀에서 따왔다. 이날 설교시간에는 중국에서 당나라 때 세워진 “대진경교유행중국비”라는 비석의 탁본이 강단 위로 올라왔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당나라 때였던 7세기에 기독교가 중국 전역에 전파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당나라와 교역이 빈번했던 신라 시대 한반도에도 이미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로마에서 유행했던 성당의 건축 양식과 아주 유사한 불국사 석굴암

의 돔 천장,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나 마리아 상 같은 역사적 흔적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시점을 7세기까지 거슬러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래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19세기 들어 비로소 기독교의 꽃이 만개했는데, 당시 기독교는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소망이었다.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1884년부터 1908년까지 불과 20여년 사이에 수십 개의 학교들이 세워졌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성장했으며, 수많은 성직자와 사회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렇게 백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한반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목사는 설명하면서,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 현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토로했다.

박 목사는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에서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어왔던 기독교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외

면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있으며, 생명보다는 축복을 강조하면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회생보다 교회 성장에 매달렸고, 힘 있는 자와 가진 자의 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날마다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청소년 사역을 올해에도 중점적인 사역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교회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찬란함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찾아가고 고통당하는 생명과 함께 아파하고 외로운 생명들에게 빛을 주는 십자가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함줄함울



대예배실 에서는 음료수 아읏!



겨자씨와 함께하는 첫 금요기도회

기도의 힘과 열정 되새긴 시간, 매월 첫 주 (금) 8시 대예배실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저녁에, 25년만의 첫 금요기도회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는 주님의교회 창립 25주년만의 첫 금요기도회가 열렸다. “8시가 되기 전까지 불과 이삼십 여 분의 성도밖에 안 계셔서, 금요기도

회가 알려지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살짝 실망하고 있는데, 8시가 되자 순식간에 오백여 명의 성도가 1층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

한 담당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님의교회에서는 겨자씨 모임을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해오는 전통이 이어져왔고 대개는 직장인이 퇴근한 이후인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는 달리 금요 심야 예배를 따로 가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박원호 담임 목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랜 소망과 기도에 목말라 있던 성도들의 바람이 겨자씨 모임과 기도회를 접목한 금요기도회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금요기도회는 매월 첫 주 금요일 8시부터 찬양 40분, 말씀 20분, 기도 60분의 비율로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를 끊지 않고 반복하면서 점차 기도시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입술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찬양과 기도가 반복되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기도가 아쉬워 금요일 밤마다 다른 교회에서 금요심야예배를 드리곤 했었다는 어느 성도의 벽찬 소감이다. 이날 기도회는 열시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결국 삼십여 분이나 연장되었다. 교회 공간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11시에는 정문을 폐쇄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 함줄함울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

역사를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히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세계적인 역사가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정의한다. 또한 토인비와 동시대를 살았던 필적할만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 1892-1982)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를 “역사가와 역사 사이의 상호작용의 연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한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역사해석방법론’이라는 학문의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된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과거

의 결과요 동시에 미래의 씨앗이다. 현재 교회의 다양한 기능들은 과거의 결과요, 씨앗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현재적 기능들과 미래적 기능들은 교회의 과거인 교회사를 통하여 조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마 28:19-20)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다.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고 왔고, 실천되어왔는가를 알 수 있다. 알버트 뉴먼(Albert H. Newman)은 “교회의 역사는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고 했고, 유명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최선의 주석”이라고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역사

를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다음으로 잘 증명해 주기 때문이고, 둘째,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시대의 교회공동체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를 알 수 있으며, 현재의 각 교파들의 기원과 이들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의 역사는 모범된 기독교적 삶을 산 개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며, 여섯째, 교회의 역사는 구름 떼와 같은 증인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들의 눈앞에 제시해줌으로써 우리를 경고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필립 샤프는 그의 책 「교회역사」(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구름 떼 같은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사도들, 전도자들, 순교자들, 박해 앞에 굴하지 않은 고백자들, 교부들, 개혁자들, 성자들은 구약의 증인들 못지 않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 일곱째, 교회사의 밝은 면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들과 소극적인 면들까지 구체적으로 배움으로써 교회 역사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으며 어둡고 소극적인 면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익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강찬 목사)

상담코너 <신앙>

Q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부모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불화로 이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교육을 물려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과 그때에 생기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고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절을 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절을 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이 잘못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우선은 가정의 복음 전파를 위해 온 가족이 평화롭게 제사의 과정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거부의사를 밝힌 후, 그것이 가족들 가운데 용납되지 않을 때는 그 순리를 따르되 마음으로는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신앙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눌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무엇보다, 절하는 것 말고도 신앙을 잃을 만한 많은 환경들에 어린 자녀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으니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聖經的(성경적)의미

눈부시고 燦爛(찬란)한 빛. 하나님의 거룩하신 臨在(임재)장면이나 그 분의 초월적인 榮光(영광)을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의미

★ 光(빛 광) : “밝음”의 상징인 火(불 화)의 변형체를 상단에 배치하고 “어질다. 좋다. 사람”을 상징하는 儿

光彩 (. brightness)

. (60 : 1)

(어진 사람 인)을 하단에 결합하여 <불을 어질게(좋게) 사용하니 빛난다> 라는 의미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光>이러한 모양의 글자였음을 유추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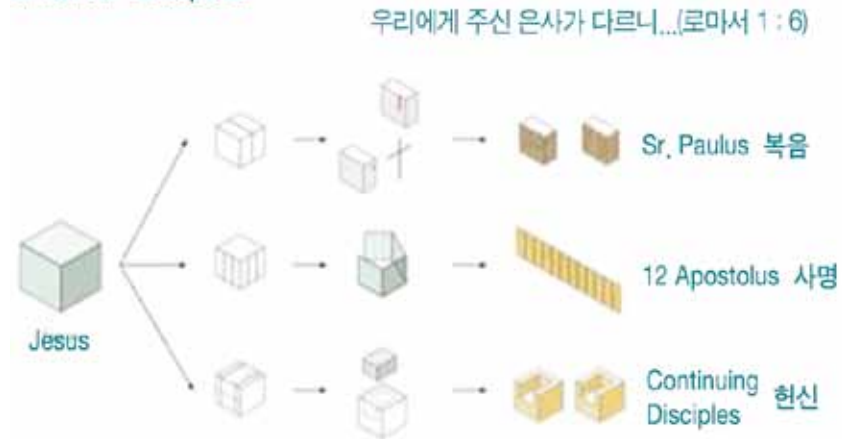
다. 불은 인류생활에 필수적인 利器(이기)임이 분명하지만 잘못 다루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문자라 하겠다.

★ 彩(빛날 채. 채색 채) : “구별하다”는 의미의 采(가릴 채)와 “칠하다. 아름답다”는 의미의 𠂔(터럭 삼)이 좌우로 결합되어 <색깔을 구별하여 아름답게 칠하니 빛난다> 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글함글

복음·사명·헌신의 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바뀐 강단 디자인,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

Derivation - Diaspora



2013년 들어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 작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강단 한 가운데의 회색 무대 배경에 철골과 자작나무 판으로 구성된, 벽감과도 같은 공간이 마련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몇 주 일 사이에 설교단과 봉헌대도 교체되었

다. 전통적인 교회의 고전적 가구와 장식에 익숙해져 있던 교회 공동체의 눈에 때론 낯설게 보이기도 하는 이 세 가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처음 건축할 때의 강단은 예배를 포함한 다양한 집회를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이었습니

다. 건축적으로 훌륭하게 완성된 건물의 구조적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번 교체의 설계를 담당한 홍기협 집사의 설명이다. 그이에 의하면, 이 공간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라는 말씀에 따라 한 몸 된 예수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이 각각 ‘복음·사명·헌신’으로 섬김’을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은 “바실리카”라는 공공건물에서 시작되었다. 집회를 위한 공공성과 예배를 위한 영성의 두 가지 다른 공간적 성격이 함축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보통 교회들은 십자가 형식으로, 공간의 깊이를 보이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 예배공간은 강단, 제단 부분의 공간적 깊이를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강단벽면을 분할하여 12제자를 상징하는 벽을 더하게 되

었다. 또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사도들의 벽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었다. 설교단과 기도단은 각각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의미하는 수평과 수직의 방향을 갖게 되며 그것이 합하여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게 된다.

이 강단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재료에도 의미가 있다. 배경판이 된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생명 나무’를 뜻하고, 철골의 프레임은 ‘무쇠같이 단단한 제자도의 삶’을, 설교단의 걸면을 장식하고 있는 돌로 된 외장재는 ‘돌무더기 광야에서 부르심’을 뜻한다고 한다. 홍집사는 다목적 공간인 까닭에 종교적 색채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깊은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면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복음·사명·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알곡공동체 예배공간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울함울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2013년도 부활절 예배드라마 준비



2013년에도 계속될 부활절 예배드라마. 사진은 2012년 부활절 예배 드라마를 마치고 모든 스태프와 연기자가 함께 한 기념사진이다.

우리 교회는 2012년 부활절을 맞아 드라마 형식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려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였다. 교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 CBS 뉴스 및 ‘목회와 신학’에 소개되었고 교회와 개인을 통해 문의가 이어졌다. 이는 우리 교회의 예배드라마가 부활절의 의미와 무게감이 열려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절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동시에 어떻게 기쁨과 소망의 절기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부활절 예배드라마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절기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의지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다. 이번 부활절을 위

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순절기간 동안 모든 교육부서가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서 세대 간에 하나 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전 성도가 예배드라마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느끼고, 지역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의 장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다. 이번 예배드라마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먼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고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은혜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회복의 경험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할 것이다. 부활절 예배드라마가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축제가 되고 한국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활발한 참여와 기도, 성도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함울함울

2013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열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열렸던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기도회의 마지막 날은 자녀를 위한 합심기도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을 맞아, 1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새벽 5시 20분부터 대예배실에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인 ‘다섯 개의 오직’ (Five Solas)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오직 믿음 (Sola Fide 솔라 피데)”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며(롬 1:17), 둘째 날은 “오직 은혜 (Sola Gratia 솔라 그라티아)”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뜻하고(엡2:8-9), 셋째 날은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솔루스 크리스투스)”로, 구속사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야 하며(요14:6),

넷째 날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솔라 스크립투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딤후 3:15~17), 다섯째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었으며(고전10:31-33), 마지막 날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이어졌다. 마지막 날 박원호 담임목사는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용서받기 보다는 용서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했다. 특히 이날 강단으로 올라온 자녀를 위한 합심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 한 특별새벽 기도회의 은혜로움을 더했다. 함울함울

로템나무

▶ ‘로템나무’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을 떠나 보내며...

지난 가을 우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암이 온 몸에 전이되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며 남은 삶의 시간이 1~3개월밖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이 눈앞에 닥치자 어찌 할 줄을 몰라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장출혈이 심해 하루에도 2~3팩의 피를 수혈 받으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대장 내시경 검사는 계속됐고 아침마다 해야 하는 피 검사 때도 혈관이 막혀 팔과 다리에는 수십 군데도 넘게 바늘을 찔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양이 장을 막아 소화도 시킬 수 없어 매일 각혈을 하니 식사는 커녕 코에 튜브를 넣어 위까지 연결해 피와 위액을 배출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극심해져 오는 진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보내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교우이신 이명자 권사님과 호스피스 사역팀 김양자 장로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의 소개로 춘천 호스피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으로 갔을 때 쌀쌀한 날씨임에도 문 앞까지 나와 환영해 주시던 회장님과 총무부장님, 간호부장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춘천 호스피스에 온 다음날부터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일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움을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매일 1000cc 가량 나오던 피와 위액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출혈이 멎었고 코에 끼워 넣었던 튜브까지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물조차도 넘기지 못했던 상태에서 마침내는 소량이지만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받았던 수혈도 필요 없이 오히려 헤모글

로빈 수치가 상승했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물론 병원 스태프들까지 감사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차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엄마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한 춘천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전신이던 ‘기쁨의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햇살, 눈 뜨면 환하게 미소 짓는 모든 분들. 마치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의 작은 쉼터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에 엄마도 감사드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환우 분들을 보며 제 스스로도 세상의 일과 욕심에 때들어 방황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영적 성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병상에 계신 엄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엄마의 오랜 친구들도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온지 3주가 지난 12월 6일 오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맑은 하늘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엄마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대학병원에서 남아 있다고 했던 3개월보다 훨씬 짧은 3주였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목인 춘천 호스피스에서 보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한때 “왜 선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내리시기 위함이란 걸 춘천 호스피스에서 지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평안하게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김승민>

정신여고 학생이 보내온 감사편지

지난 연말, 함글함글 기자에게 작은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에 졸업하는 정신여고 학생 가운데, 관리집사에게 예쁜 카드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3년 동안 지낸 학교를 떠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뜻을 보낸 그 마음이 참 예뻐서, 여기에 전문을 수록한다.

주님의교회 관리집사님들께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선교부 18기 차장 전희수입니다. 전희수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생긴 애, 키 크고 하얀 아이

매일 교실에 불 켜달라고 내려오던 아이.

어느 덧 3년이네요. 이제 정말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득 이렇게 학교를 떠나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씁니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전화를 해서 불을

켜달라고 그리고 귀찮으셨을 때도 많았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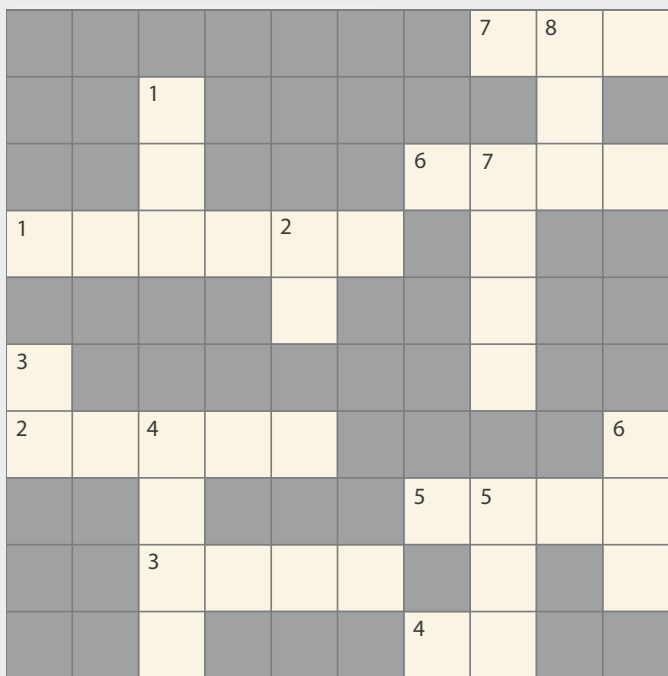
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정신여고 선교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카툰



말씀따라 가로세로 - 창세기 편



“말씀따라 가로세로”는 ‘십자말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마련된 퍼즐입니다. 이번 호는 그 첫번째로 ‘창세기 편’입니다.

- 〈가로〉
1. 죄악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이 유향과 불로 멸하신 두 도시
 2.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그의 형제 하란이 죽은 곳
 3. 살렘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축복함
 4.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하던 곳
 5.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 중에 하나
 6.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로 그랄왕과 맹세했던 우물이 있는 곳
 7. 함의 손자이며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 〈세로〉
1.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2.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로 이 후 한 민족을 이룸
 3. 사라의 여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음
 4.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고 이삭과 계약을 맺은 블레셋왕
 5. 리브가의 아버지
 6. 에덴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 중에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
 7.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상속자로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8. 요셉의 장자

* 특집 _ 2013 신임 교역자 소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들

2013년 새해를 주님의교회에서 맞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신임 교역자 12명을 환영하면서, 벅찬 한해를 함께 열어갈 그이들의 100자 소감을 들어본다.



최방은 목사 4교구, 양육, 새가족, 3여전도회

〈가족〉안양아 / 영은, 서은, 산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에 대해 적응하느라, 허우적거릴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 듯 시간은 흘러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의 삶도 그러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삶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을에서 또 다른 행복한 이야기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쓰길 원합니다.



장수현 목사 8교구, 미디어, 4여전도회

〈가족〉김정선 / 다원, 윤성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저에게 가나안이 주님의 교회

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그리고 밝게 웃으며 사역할게요 ^^



김용웅 목사 3교구, 문화예술, 5여전도회

〈가족〉김주화 / 하민

주님과 함께 신나는 생활! "웃음과 열정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동그라미 4개 김용웅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자유함"을 우리의 삶속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

하며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며 그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홍성욱 목사 1교구, 국내선교, 6여전도회

〈가족〉김미영 / 예진, 예찬

하나님의 나라위해 헌신하는 교육선교의 비전을 품은 멋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꿈을 꾸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역동적인 사역가운데 이루어질 새로운 만남과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김성일 전도사 (교육전임) 중등부

요즘 중등부 아이들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벽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곱고 역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이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현규 전도사 (교육전임)고등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으로 불러 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한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인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며 행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보영 전도사 (교육전임) 아동부, 유치부

2013년 주님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기대하며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길 꿈꾸며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사역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삼열 전도사 (준전임) 청년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교회 청년지체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2013년도 한 해 함께 누릴 행복한 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청년 공동체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강동혁 전도사 (준전임)찬양

샬롬!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강동혁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듯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전도사 (준전임) 예수친구사역

처음 예배당을 보면서 설렘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눈망울을 젖게 했습니다. 뛰는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사역하면서 귀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이은선 목사 (파트) 유년부 1,2

포도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찢힙니다.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2013년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유년부를 기대합니다.



도미술 교육전도사 청년

청년부를 섬기게 된 도미술전도사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길에 가슴 벅찬 설렘이 있습니다. 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길

이렇게 함글함글을 통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10교구와 사역으로는 주일4부, 수요찬양, 중보기도, 가정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3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3대째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2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고3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는 한 친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part time으로) 내 삶 전체(Full time)를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직과 세속직업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에게 있어 목회자로서의 부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물질적 풍요함이나 세상적 가치들을 뒤로하고 구도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를 향한 연민의 눈길이 아니었



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면 조금의 경제적인 불편함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고유한 기쁨과 보람은 한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기쁨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사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임창진 목사>

교회 사역 일정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 2/1(금) 저녁 8시, 대예배실
 참회의 수요일 - 2/13(수)
 예친사개강 - 2/19일(화) 저녁 7시 30분, 중예배실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2/22~23(금~토)

알림

성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성도와 함께 하는 교회 신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사와 글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들은 <함글함글>이 제 몫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각 기관의 활동 소식 : 500자 내외
- 겨자씨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소식 : 300자 내외
-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정신학원의 소식: 500자 내외
- 신앙 간증 : 400자 내외
- 귀엽고 재미있는 교회 안 예쁜 장면 사진 : 사진과 간단한 설명
- 성도 신앙 칼럼 : 600자 내외

원고는 hamletter@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하실 때에는 관련 사진과 사진 설명, 보내주시는 분의 전화연락처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하고, 편집 지침과 지면 사정에 따라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편집부

■ 교회단신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신년예배



2013년 송파구기독교연합회 신년예배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1월 22일(화) 저녁7시 송파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송파구민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와 함께 거행되었다. 이날,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는 송파기독교 연합회 2013년도 대표회장장에 취임하였다. 이날 참석한 100여 관계자들은 주님의교회가 송파구 교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함께 기도했다.

평양노회 서울 여전도회 지회장 협의회



제30회 평양노회 서울 여전도회 지회장 협의회가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주님의교회에서 열렸다. 주님의교회 여전도회 회원과 평양노회 여전도회 지회장등 250여명이 모여 2013년 신년 예배를 드렸다. 미소데이 선교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고, 박원호 담임목사가 사마리아 여인의 예화를 들어 낮은 곳에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다문화교회 하남비전교회 신년 감사예배



2013년 1월 13일 이주민 사역 다문화 교회인 하남 비전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남 비전교회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중국인들이 드리는 중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베트남 교회로 예배가 드러진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 7년간 하남 비전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의료선교팀, 주한외국인선교팀, 이미용팀과 미술인선교팀의 봉사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호스피스 사역팀, 서울적십자 병원 사역 시작



호스피스사역팀에서는 2013년부터 적십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진료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의료소의계층을 위해 적십자 병원과 서울대학병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재단이 협력하여 사회 공헌을 하는 곳이다. 2012년 12월 21일에 첫발을 내딛은 적십자 병원 호스피스팀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우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담당한다.